위기의 농어촌
활로를 찾자

<23>화순 한약재 재배 강국주씨

전량 계약재배 "판로 걱정 없어요"

"동복은 예로부터 친환경 자연 벌꿀인 복청과 복삼, 복천어 등 삼복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게다가 군에서 정부보조 지원사업으로 한약초 재배를 적극 지원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 영광과 광주 등지에서 직장생활과 '이것 저것' 손을 대던 강국주(47)씨는 지난해 봄 귀농했다.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고향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로 돌아온 것이다. 귀농 첫해 강씨는 한봉과 한약초 재배에 승부수를 던졌다.

4일 유천리를 찾았을 때 강씨는 비닐하우스내에서 외삼촌 한형섭(74)·이옥단(74) 내외와 함께 수확한 생지황(地黃)을 크기별로 분류하느라 부산했다. 지황은 해열 작용과 지혈 효과가 뛰어나 경옥고(瓊玉膏)와 십전대보탕 등 각종 한약재 원료로 쓰인다.

◇친환경 자연벌꿀 '복청'=지난해 귀농후 강씨는 30여 년간 복청을 해온 형님 점주(48)씨와 함께 복청 명맥 잇기와 상품화에 발벗고 나섰다. 70여 통을 쳐서 다소 적은 40여 근을 채취한 후 효능이 뛰어남에도 상품화에는 뒤졌던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판촉활동과 함께 시험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했다. 그 결과 시중가의 10배 이상인 600g(1근)당 10만원에 판매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복청'은 자연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잘 보존된 동복 지역에서 생산돼 몸에 좋은 단백질, 미네랄, 방향성 물질, 아미노산, 비타민 B1·B2, 니코틴산, 비오틴, 염산 등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농 2년차…생지황 재배
수확기 줄이고 생산량 증대
쌀농사 6배 이상 수익 기대

귀농 2년차인 강국주씨가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생지황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있다. 아래는 경옥고 등 원료로 사용되는 지황.

강씨는 "소비자들은 인증서를 찾습니다. 복청은 설탕 등 첨가물을 전혀 넣지않기 때문에 일반 벌꿀과 차별화할 수 있게끔 정부기관에서 '탄소동위원소비 측정' 등과 같은 분석기법을 통해 공식 인증해주는 법적 제도장치와 기준마련이 절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약초 메카' 꿈꾸는 화순=화순군은 전체 면적의 74%가 산림이고, 연평균 기온이 13.8도로 서늘하면서도 일조량이 풍부해 약초 재배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유천리는 고려인삼 시배지로 알려진 화순 모후산(919m) 산자락에 위치해 있다. 마을 진입로 좌우에 있는 비닐하우스에는 강씨를 비롯해 농업인들의 '꿈'이 자라고 있다. 바로 지난해부터 심기 시작한 한약초 생지황이다. 현재 14농가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지황을 재배하고 있다.

생지황은 '잘 심으면 금 캐고 수해 입으면 쪽박 찬다'고 할 만큼 수분조절이 까다롭다. 지난 7월 장마기간 동안 쏟아진 빗물이 비닐하우스 내로 유입되며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부터 한약초 재배에 뛰어든 화순군 한약초 재배 농업인들은 충남 금산이나 경북 군위 등보다 약초재배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군 농업기술센터 한약초팀과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화순군은 한약초를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집중 투자·육성, 현재 화순읍, 이양면, 동복면, 동면, 남면 등지 1천300여 농가가 250여ha에서 생지황을 비롯해 작약, 당귀, 석창포 등 한약초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지황, 작약 등 26ha에 GAP 인증을 획득해 한약초의 메카로서 대외적으로 크게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군은 앞으로 관내 농업인이 고품질 한약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한약초 대학' 운영 등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된 판매망을 개척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강씨는 지난해 당귀와 백지에 이어 올해 생지황 재배를 해보며 나름 고품질 재배에 대한 노하우를 깨달을 수 있었다. 올해의 경우 장마 때문에 수확량이 기대치보다 저조했다. 고품질 제품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토심을 깊게 하는 토양관리와 퇴비, 두둑 관리 등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토양관리 등 '기초체력' 중요="쌀농사는 평당 3천원의 수익을 내기도 어려워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정부 보조금 등으로 겨우 짓지만, 생지황은 담배인삼공사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판로에 문제가 없어 농업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생지황은 kg당 4천여원(1등급)에 수매돼 단위면적당 수익이 2만원에 달할 정도여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다. 생지황 재배는 4월께 4~5㎝ 길이의 종근을 가로로 심으면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자라며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수확을 하게 된다. 귀농 2년차인 강씨는 수확기 단축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내년에는 토양의 '기초 체력'을 높이고 현재 비닐하우스 2동(330평)인 재배면적도 더욱 늘릴 생각이다.

강씨는 "동복은 모후산에 자생하는 240여 종의 약용식물 등 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복청은 여느 꿀보다 효능이 탁월합니다. 또 한약초는 고령층에 많은 농촌현실에 새로운 대체작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청과 한약초 재배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화순=정운수기자 unsu@kwangju.co.kr

영암서 한우 1,200마리 키우는 김정수씨

김정수씨의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사.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
연간 5억원 이상 고소득

20여년 넘게 소를 사육하며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으로 꾸준히 사육규모를 늘려 연간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어 화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읍에서 4천여평 규모의 자동화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정수(51)씨는 지난 1984년 자기자본 없이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친환경 축산을 실천해오다 지난 2007년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획득 당시 김씨의 사육 규모는 1천여 마리다.

지난 84년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돼 젖소 5마리로 축산업에 뛰어든 김씨는 하지만 2년여 사육 끝에 소값 폭락으로 겨우 원금만 건지고 더 이상 사육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김씨의 성공에 대한 집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육하던 젖소를 모두 처분하고 대신 한우를 사들였다.

이후 축사 환경을 늘 깨끗이 유지하는 친환경사육을 실천한 지 23년, 4천평 규모의 자동화된 축사에서 1천200여 마리의 거세우를 기르는 전국 최대 한우 사육농가로 우뚝섰다. 한우와 축사 등을 모두 포함한 자산가치는 60억원에 이를 정도다.

김씨의 성공신화는 근면 성실에서 비롯됐다. 축산업에 뛰어든 이후 하루 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날이 손으로 꼽을 정도란다.

축사는 완벽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 환경오염 예방 및 청결 유지, 주변 경관 조성 실시로 단 한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모범적인 친환경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의 입식·출하 및 질병관리 등 사육 전반에 관한 경영일지를 작성, 과학영농 실현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노하우를 축산농가 기술 보급에도 기여해오고 있다.

그동안 무항생제축산 및 자체 TMR(완전배합사료) 급여로 한우 등급을 향상시켜 2006년 축산물등급판정 우수상을 수상했고 시설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 강화 및 사육규모 확대로 2008년에는 전남 농업인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씨는 "앞으로도 소 판매 수익금 등을 끊임없이 재투자해 축산 규모를 확대하고 축산기술 보급과 축산업 경영 노하우를 축산농가에 보급,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고소득 농업인으로서 불우이웃 돕기 및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친환경축산 실천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과제로 내년 친환경축산물인증 목표를 5천호로 대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 무항생제 축산물생산지원 등 11개 사업에 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생산된 친환경 축산물은 서울·광주 등 대도시권에서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이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